

■ 주요 뉴스: 블룸버그 서베이, 미국 경제 2,3분기 마이너스 성장 예상

- 엘런 미 재무장관, 의회의 부채한도 지연 처리시 경기침체 가능성 경고
-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,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 피력
- 시진핑 주석, 올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

■ 국제금융시장(주간):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로 투자심리 위축

주가 하락[-0.7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하락[-2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
유로 Stoxx600지수도 ECB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인상 감속지지 발언 등으로 하락
유로화 가치는 0.2% 절상, 엔화는 1.4% 절하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로 하락
독일은 라가르드 ECB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따라 상승 반전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4% 하락, 한국 CDS 2bp 하락

		1/20일	1/13일	전주말대비			1/20일	1/13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3,972.6	3,999.1	-0.66%	국채 금리 10y	미국	3.48%	3.50%	-2bp
	유럽	452.12	452.54	-0.09%		독일	2.18%	2.17%	1bp
	중국	3,264.8	3,195.3	2.18%		영국	3.38%	3.37%	1bp
	일본	26,554	26,120	1.66%	CDS 5y	한국	41bp	43bp	-2bp
	한국	2,395.3	2,386.1	0.38%		중국	52bp	53bp	-1bp
	달러지수	102.01	102.20	-0.19%	위험 지표	EMBI+	372	377	-5bp
환율	유로화	1.0856	1.0830	0.24%		VIX	19.85	18.35	8.17%
	엔화	129.60	127.87	-1.33%		WTI유	78.39	79.86	-1.84%
	위안화	6.7927	6.7010	-1.35%	원자재	구리	425.2	421.6	0.84%
	원화	1.2397	1.2227	1.39%		금	1,926.1	1,920.2	0.3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블룸버그 서베이, 미국 경제 2,3분기 마이너스 성장 예상

- 블룸버그가 경제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(1.13일~18일)에서 2분기 미국 실질 GDP가 0.6%(연율) 하락할 것으로 예상. 3분기도 -0.3% 성장하여 2개 분기 연속 수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
- 1개월전 설문조사에서는 2분기 -0.7%, 3분기 0% 성장을 예상했으나, 이번 설문에서는 3분기 역성장으로 전망 수정. 또한 1년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도달할 확률을 65%로 예상
- 연준의 금리인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지출, 기업 투자 등이 악화하여 침체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.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채용을 줄이면서 실업률은 연말 5%까지 상승 가능성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'23.4분기 2.9%, '23년 전체로는 3.7%로 전망하며 연준의 목표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연말 정책금리는 4.75%~5.00% 수준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엘런 미 재무장관, 의회의 부채한도 지연 처리시 경기침체 가능성 경고

- 재무부의 비상수단은 6월초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, 그전까지 부채한도 증액이 실패할 경우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
-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의 경우 미국과 일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

■ 시진핑 주석, 올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

- 춘절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으나 통제될 것을 확신. 코로나19 조치와 경제 회복 정책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도록 나아갈 방침

■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,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 피력

- 일본 경제 전반에 물가상승 압력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, '22.12월 YCC 밴드를 확장한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언급. 최근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것은 수입물가 때문이며, 임금상승을 통한 물가 동력확보가 필요한 시점

■ 일본 공적연금펀드(GPIF), 포트폴리오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

- 글로벌 최대 연기금인 GPIF는 지난해말 일본은행이 YCC 밴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을 계획
- BoJ의 YCC 밴드 조정 이후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으나, 이는 예상 가능한 범위였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

■ 에스더 조지 캔사스 연은 총재, 연준 긴축속도 조절 필요성 언급

- 팬데믹 동안 축적된 가계의 저축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, 연준의 금리인상이 감속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.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여파가 경제 전반에 나타날 수 있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

■ 미국 12월 기존주택판매, 11개월 연속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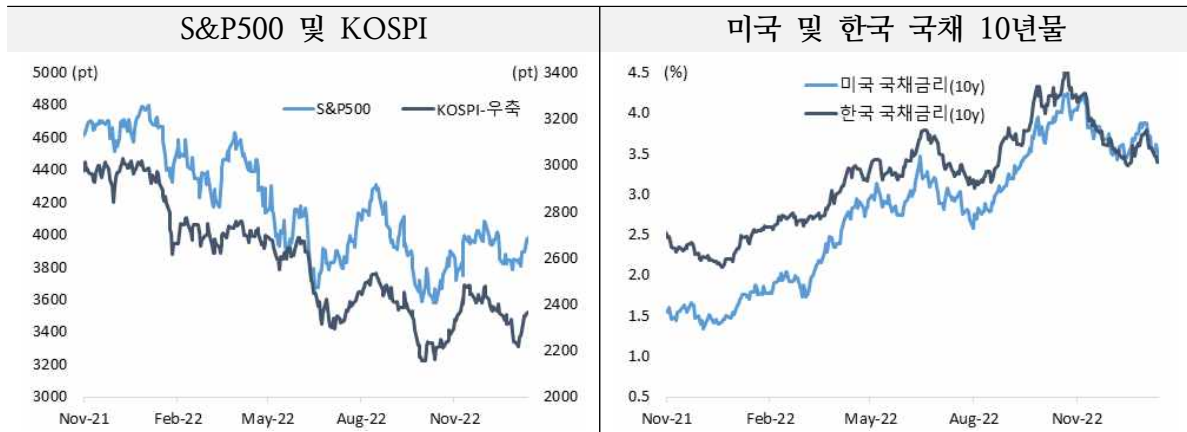
- 12월 기존주택 판매는 402만호를 기록하며 전월비 1.5% 감소. 예상치(-3.4%)를 웃돌았으나, '10.10월 이후 최소치. 또한 주택판매를 고려한 재고 수준은 2.9개월치를 기록하였는데, 일반적으로 해당 수치가 5개월 미만인 경우 주택시장의 공급이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
- 주택시장이 위축된 것은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 등에 기인. 다만 지난해말 모기지 금리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여져 주택판매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이번주 주요 경제 이벤트

- 미국 1월 S&P 제조업 PMI(24일), '22.4분기 GDP(26일), PCE(27일)
- 통화정책회의 : 캐나다(25일), 태국(25일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053, E-mail jchwang@kcif.or.kr